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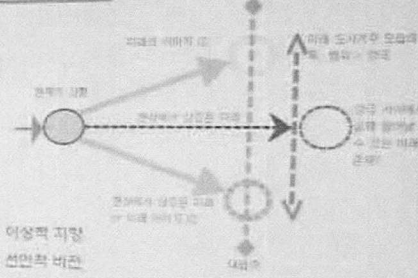


2007 미래주거환경 포럼  
**발표: 미래주거환경 비전 및 전략**

일시: 2007년 5월 28일(월) 14:00~17:30    장소: 국립중앙박물관 교육관 소강당    주최: 미래주거환경포럼    주관: (사)한국주거학회    후원: 건설교통부

**4. 비전 설정방법**

1) 설정 다이어그램



2) 설정 방향

- 현재의 문제개선 < 이상적 지향
- 예측적 비전 < 선안적 비전
- 축 비전 < 수적 비전
- 구분적인 비전 < 종합적 비전
- 일반적인 디딤 < 강조되어야 할 비전

2007 미래주거환경 포럼

# ‘함께하는 주거, 살고 싶은 집’ 주거 비전 발표

미래주거환경 포럼은 지난 1년여 동안 연구한 ‘미래주거환경의 비전 및 전략’에 관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에 참여한 연구진들과 포럼 자문위원, 협력위원, 연구위원들이 참석해 그동안 연구했던 결과를 놓고 토론하는 등 관계자들의 눈길을 끌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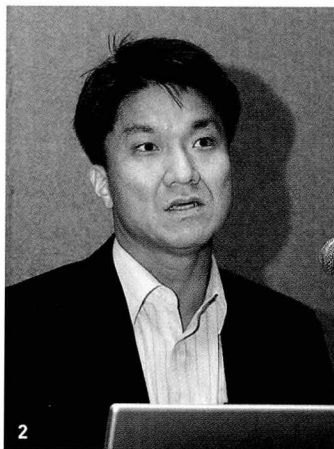
에디터 | 김대환 · 사진 | 고하진

미래주거환경 포럼은 지난 5월 28일 건설교통부 후원으로 국립중앙박물관 교육관 1층 소강당에서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연구 성과를 발표하는 자리였으며, 발표 후 관련 연구자들과 함께 종합 토론으로 진행됐다. 미래주거환경 포럼은 최재필 서울대학교 교수를 비롯해 주거·철학·심리학·IT 등 각계 전문가 50여 명으로 구성돼 지난 1년여 동안 한국주거학회와 공동으로 미래주거환경 비전과 추진전략에 대해 연구해왔다. 포럼은 강순주 건국대학교 주거환경 전공 교수가 진행했다.

이어 한국주거학회장을 맡은 이경희 중앙대학교 교수는 “예상된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대응 방안으로 새로운 주거 기술을 연구 중이다”며 “앞으로 미래 주거환경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개선하는 장을 마련했으면 한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포럼에서는 미래 주거환경의 핵심적인 키워드로 ‘인간의 감성’이 제시됐다. ‘친환경주거 관련 기술개발’ 역시 미래 주거의 중요한 화두로 대두됐다.

연구 성과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김성아 성균관대 교수는 “미래 주거는 인간 중심의 기술이 개발돼 감성에 능동적으로 반응하는 형태로 주거환경에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기술이 편리한 형태로 진화돼 보편성과 복지성을 한층 업그레이드된 주거환경을 구축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김 교수는 “기술이란 창문과 같은 존재로 우리가 기술을 통해 세상을 봐야 하며 풍경을 감상해야 한다”라며 기술의 도구적 특성을 강조했다.

전정윤 연세대 교수는 “미래 주거환경은 친환경 공법·자재·기술 등을 개발해 적용함으로써 자연친화적 거주성을 향상시켜야 한다”며 “이를 위해 소비자와 건설업 종사자, 유지관리자 등 관계자들에 대한 교육확대와 관련 제도 정비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날 포럼에서 ‘미래주거환경 포럼’ 연구자들은 △개성 있는 주거 △어울리는 주거 △앞서가는 주거 △남북통일 대비 등의 비전을 제시하며 전략을 설정했다.

참석자들은 ‘개성 있는 주거’를 위해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을 강조하며 주거의 스펙트럼 확대를 전략으로 발표했다. 주택의 다품종 소량화 개발과 한옥의 현대화도 주요 전략으로 나왔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맞는 주거 시설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주거지 내 공용 시설 및 사회 서비스 시설 개발 지원과 공동 육아, 공동 노인 케어 시스템 수립이 절실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한 ‘어울리는 주거’를 위해서는 먼저 빈부격차가 해소돼야 한다고 참석자들은 입을 모았다. 이를 위해 최저 주거 수준이 개선돼야 하고 주거복지 전담기구와 전문인력 양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양한 형태의 임대주택 공급이 확대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세계 최고 수준인 IT 기술을 바탕으로 ‘앞서가는 주거’를 만들자는 취지로 유비쿼터스·친환경 주거가 강조됐다. 유비쿼터스 사회에 대응하는 전략으로 감성전달 기술개발과 커뮤니케이션 활성화 융합기술개발, 인간·환경·기술 컨버전스가 발

표됐다. 친환경 주거 환경을 위해서는 친환경 주거 관련 기술 개발과 관련 제도 정비·교육이 필요하다는 데도 의견을 일치했다.

미래주거환경포럼이 발표한 미래주거환경 비전 및 전략은 우리나라 주거의 2020년을 내다보는 장기적인 모습을 미리 계획한 것으로서 앞으로 관련 정책이나 국민들의 주거 생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1 포럼에서는 미래 주거 환경의 핵심적인 키워드로 ‘인간의 감성’이 제시 됐다. 2 김성아 성균관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3 전정윤 연세대학교 주거환경학과 교수.